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복, 임마누엘

본문: 창세기 39:1-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9QiqIpOpe9Q?si=Ksmb1uIhIdR3OX10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즉시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축복의 꿈을 꾸었지만, 그의 현실은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 가는 기가 막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가 처한 환경의 편안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손발이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신다면 그 구덩이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안락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편안함과 형통이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사명만을 다했습니다. 진짜 복은 상황이 어렵든 편안하든 변함없이 나와 손을 잡고 걸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자이며 형통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고난 속에 있든 안락함 속에 있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간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창 39:2)

2.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주인이 요셉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창 39:3)

[삶의 적용]

1. 내가 평소에 기대하고 바라던 '복'과 '형통'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자체가 진짜 복임을 오늘 하루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2. 편안할 때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할 '청지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자 형통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묵묵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